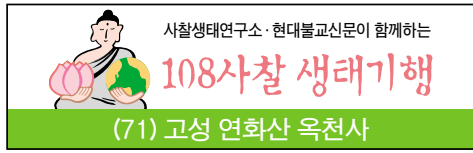


# 연꽃속에 자리잡은 맑고 넉넉한 도량



육천사 방생량 표지석



육천사 대웅전 배수구 돌다리



무당벌레

경남 고성 땅은 옛날 소가야의 영토였다. 6세기 전반에 신라가 병합하기 했으나, 서라벌에서는 먼 변방이었다. 따라서 의상대사가 이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곳에 화엄십찰의 하나인 육천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전하는 바에도, 원래 '비슬산'이었던 지명을 조선 인조 때 학병대사가 지금의 지명으로 고쳤다고 한다. 이웃한 지리산 쌍계사 진감국사비에도 "이웃 고을에 같은 이름인 육천사가 있어서, 쌍계사 이름을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화산(蓮花山)은 산림청이 지정한 100대 명산의 하나이자, 경남의 도립공원이다. 연화산은 지리산 영신봉(165m)에서 내려온 낙남정맥의 한 지봉에 속한다. 하동과 진주 사이로 내려온 낙남정맥은 연화산에서 다시 북동진하면서 대곡산(543) - 여항산(744) - 무학산(763)으로 이어진다.

육천사 입구 집단시설지구 원전 산기슭에 방생량(放生場) 표석이 서 있다. 승정기원후(崇禎紀元後) 4년, 인조 때 개각(改刻)해 세웠다고 하니 4백년에 가까운 유물이다. 토박이 문화유산해설사인 김영환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 방생 수목제(水陸齋)가 열렸다고 한다. 표석 주위에 소류지가 있어서 물고기를 방생하고, 산짐승들을 위해 먹줄을 갖춰 보시했다고 전한다. 말하자면, 자연보호 활동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표석 건너편에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있다. 지름이 30cm 안팎 되는 중형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이 수십개나 된다. 앞뒷발이 분명해서 방향을 짐작해 해주고 있다. 유적이 계곡에 자리하고 있어서 장마철이면 위로부터 돌과 토사가 내려와 축적의 마모를 재촉하고, 관광객들도 함부로 들어가 훼손을 앞당기고 있다. 안내판이라도 세워 자연사의 흔적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육천사 백련암

육천사 반대편 연화산 자락의 계곡사에 도 얼마 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악기 공룡발자국 화석이 남아있다. 종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

큰 저수지 주변엔 굴피나무 군락이 있고, 저수지를 지나면 노송, 느티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서어나무 등 높은 활엽수들이 만들어내는 선경 같은 숲길로 접어든다. 말채나무, 산뽕나무, 자귀나무, 층층나무, 산뽕나무, 비목, 단풍나무, 두릅나무, 편백나무, 쪽동백, 나도밤나무, 생강나무 등등의 중간 크기 나무들도 층위 구조를 탄탄히 하며 한데 어울려 있다. 일주문은 그 숲길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일주문 오른쪽의 육천은 서출동류하는 육천사의 명당수이다. 갈수기인데도 물소리가 맑고 넉넉하다. 갈겨니와 버들치들이 물 위에 떨어진 단풍잎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옛날 육천 곳곳에는 조선시대 불교피압의 역사와 관련된 물레방아가 즐비해 있었다고 한다.

김삿배 귀화식물인 미국미역취가 날보란 듯이 피어났다. 이름에서 보자시피 미국 원산의 여러해살이 국화과 식물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남부지방에 분포한다.

천왕문을 지나 편백나무과 전나무가 즐비한 선 석축을 오르면 암수 은행나무 노거수가 자리한 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오른쪽으로는 이 절에서 출가한 창당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자리하고 있다.

마당 가운데 서면 자방루(紫芳樓)가 마치 거대한 성채처럼 석축 위에 앉아 있다. 자방루는 3백년 된 건물로, 당시 승군의 회합 공간으로 쓰였던 건물이다. 자방루 앞에 서면 육천사의 안대가 말잔처럼 부드럽게 지나간다.

육천사의 가람배치는 네모난 마당을 가운데 배치한 조선 중기의 중정(中庭) 구조

에 충실하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심검당과 적묵당을 두고, 맞은 편에 자방루가 자리하고 있다. 전각 배치가 너무 조밀하여 좁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산을 다치지 않게 지형지세를 고려한 결과이다. 육천사에는 토착화 과정에서 불교에 습합된 고유의 민간신앙들이 어렵잖게 만날

수 있다. 신령각에는 산신을 모시고, 칠성각에는 칠성신을 모시고, 육천각에는 용왕신을 모시고, 요사채 부엌에는 조왕대신 탕화가 걸려 있다. 육천사의 제신들은 삼신일각(三神一閣)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독립된 전각을 지어 따로 모시고 있다. 특히 산령각은 반평에도 못 미치는 0.46평으로 우리나라 전각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선 채로 절을 한다. 그래도 1백년이 훨

## 입구에 세워진 방생량 표석 4백년 전 자연보호 현장 천연기념물 공룡발자국 훼손 심각, 종단서 보존해야 작은 돌다리 형태로 만든 배수구 미·기능 모두 갖춰



육천사 공룡발자국

리도 눈맛이 예사롭지 않다. 대웅전 공간 뒤에는 귀화식물인 털별꽃 아재비가 희고 양장맞은 꽃들을 안개처럼 피우고 있다. 고향이 아열대지역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날씨가 따뜻한 남부지역에서 자란다. 키는 30cm 안팎이며, 가지와 잎에 털이 촘촘히 나 있다.

명부전 뒤로 가면 산이름과 절이름의 연기를 밝혀주는 육천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용왕을 모신 용신신앙의 현장이다. 특히 고성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용신

신앙에 대한 믿음이 깊다. 탐진당 처마 안에 말벌이 멋진 집을 지어 놓았다. 말벌은 건물이나 바위 아래에 황아리 모양의 집을 짓는데, 말벌류의 집 가운데는 가장 아름답다. 말벌의 집은 나무껍질에서 섬유질을 뜯어 집과 섞은 밀랍으로 짓는다. 말벌은 가을이면 애벌레를 보호하기 위해 열어놓았던 문을 꼭꼭 틀어막는다.

산내암자인 청련암은 육천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다. 암을 이상체 포라고 한다면, 나무들도 암을 앓는다. 개울 건너 청련암 갈림길에 늙은 개서어나무가 암을 앓고 있다. 청련암 뒤로 아담하니 대숲이 내려와 있다. 청련암은 차나무를 키워서 생울로 조경하였다. 해우소 가는 길에 때마침 차꽃이 피어 꼬마장수말벌 몇 마리가 이 꽃저 꽃 찾아다니며 꿀을 빨고 있다. 채소밭 밭둑의 산국에도 몇 종류의 벌들이 앉아서 꿀을 빨고 있다.

전선(케이블) - 천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천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중등

팔각봉축전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경고 : 천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케이블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아름다운 등

## 천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천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